



## 암호화폐

### CME 그룹, 카르다노·체인링크·스텔라루멘 선물 출시

▶ Analyst 최윤영 yy.choy@hanwha.com 3772-7402

CME 그룹이 카르다노, 체인링크, 스텔라루멘 기반 선물을 2월 9일 출시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이던 암호화폐 파생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지난주 CME 그룹의 2025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는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24/7 거래 도입을 통해 현물시장과의 시간대 괴리를 축소하고, 예측시장형 계약의 활용 범위를 넓혀 이벤트 기반 페이오프 구조까지 포괄하는 파생 인프라로의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토큰화 현금, 자체 코인 출시, 암호화폐 담보 수용 논의는 CME가 단순 상품 라인업 확장을 넘어 클리어링, 마진 등 핵심 시장 인프라를 디지털자산과 결합하려는 장기 전략을 시사합니다. 이는 온체인 네이티브 파생 프로토콜과는 다른 제도에서, 규제된 중앙청산소(CCP) 인프라 위에 전통금융형 디지털자산 레이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 CME 그룹, 암호화폐 파생상품 라인업 확장

CME 그룹이 2월 9일 카르다노(ADA), 체인링크(LINK), 스텔라루멘(XLM)에 연동된 선물 계약을 출시했다. 해당 선물은 스탠다드와 마이크로 두 가지 사이즈로 설계돼 시장 참여자가 포지션 크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카르다노 선물은 10만 ADA(마이크로 1만 ADA), 체인링크 선물은 5,000 LINK(마이크로 250 LINK), 스텔라루멘 선물은 25만 XLM(마이크로 1.25만 XLM) 단위로 구성된다. CME 그룹은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급성장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에 대한 헤지 수요와 규제된 환경에서의 시장 익스포저 확보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기관과 리테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파생상품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실적발표에서 확인된 CME 그룹의 로드맵

이번 알트코인 선물 출시는 지난주 CME 그룹의 실적발표에서 제시된 디지털자산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CME 그룹은 기존 비트코인·이더리움 위주의 라인업에 더해 다른 알트코인까지 파생 커버리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 2월 9일부터 24/7 거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다음 분기까지 암호화폐 상품 전반을 상시 거래 체제로 전환해 주말에도 열려 있는 현물 시장과의 시간대 괴리를 줄이고 헤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공유했다. 리테일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CME 그룹은 파트너십 기반 예측시장형 계약을 지수·원자재·경제지표·스포츠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시 6주 만에 누적 거래량은 6,800만 계약을 상회했고, 이 중 비스포츠 계약이 700만 계약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CME 그룹은 담보·청산 레이어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구글과 함께 토큰화 현금(tokenized cash)을 올해 안에 론칭할 계획이며 다른 예치은행(depository bank)이 이를 보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코인을 발행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업계 참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담보 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발행 주체의 신용도·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달라지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IFI) 금융기관 발행 토큰에는 상대적으로 열려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기관의 토큰은 큰 헤어컷을 적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됐다.

#### CME가 그리는 규제권 디지털자산 레이어의 윤곽

CME 그룹의 움직임은 세 가지 층위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규제된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돼 있

던 암호화폐 익스포저가 다른 알트코인으로까지 넓어지면서, 기관 투자자는 암호화폐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게 됐다. 여기에 예측시장형 계약까지 결합되며, 단순 가격 방향성뿐 아니라 특정 이벤트 결과에 기반한 다양한 페이오프 구조를 단일 인프라 안에서 구현하려는 방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둘째, 24/7 거래 도입은 지금까지 기존 파생시장의 한계점 중 하나였던 주말·비거래 시간대의 가격 갭 리스크를 규제 파생 인프라 안에서 흡수하려는 시도로 이미 상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 구조에 더욱 가까워지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헤지 수단으로서의 선물·옵션 기능을 강화해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관이 현물·파생 양쪽에서 더 일관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든다. 셋째, 토큰화 현금, 자체 코인, 토큰화 담보 수용 논의는 CME 그룹이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만 다루는 수준을 넘어 클리어링과 마진 프로세스 자체를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연결하려는 장기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온체인 네이티브 파생 프로토콜과는 다른 궤도에서, 규제된 중앙청산소(CCP) 인프라 위에 디지털자산을 포괄하는 전통금융형 레이어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Compliance Notice ]

(공표일: 2026년 2월 11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 산업 투자의견 ]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투자등급       | 매수    | 중립    | 매도   | 합계     |
|------------|-------|-------|------|--------|
|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 87.0% | 13.0% | 0.0% | 100.0% |